칼 럼

곽 경 호 뉴시스 산업2부장

프랜차이즈 없는 골목 상권

얼마전 필자가 사는 동네에 조그만 수제돈까스 가게가 문을 열었다. 3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셰프겸 사장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의 틈바구니에도 불구, 당차게 가게문을 연 기개가 가상해보여, 유심히 지켜봤다. 하지만 오가며 "왜 저렇게 손님이 없지"하는 안타까움이 반복되더니 결국 최근에는 가게 불이 꺼져 버렸다. '비(非) 프랜차이즈'의 절망에 부딪힌 것이다.

가맹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집어삼킨지 오래다. 햄버거, 피자, 제빵, 치킨, 돈까스, 커피, 생맥주 등 품목도 엄청나다. 동네 대로변을 한 바퀴만 돌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미스터피자 간판이 줄줄이 붙어 있다. 온통 프랜차이즈 세상이다. 그나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낫다. 어쭙잖은 브랜드를 내걸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들도 부지기수다. 2015년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수는 무려 5273개였다. 여기에 딸린 가맹점 숫자는 21만8997개나 됐다. 이들 가운데 매년 10% 내외는 1년도 안돼 문을 닫는다. 대다수는 영업 부진으로 폐점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못견뎌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않다. 한해 2만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가슴에 피멍을 안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창업 관련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과 관련된 Q&A가 수두룩하다. 사무실과 직원 서너명, 직영점 한곳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주류다. 이렇게 시작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50군데만 확보하면 본사 사장은 평생 먹고 살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로 돼 있다. 부실 프랜차이즈는 영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필자가 과거에 알던 40대 A씨의 사례다. 그는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을 탈탈 털어 펍 레스토랑 형태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했다. 본사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을 쏟아 부었다. 잘 알려지지않은 브랜드였으나 신문광고를 집중적으로 해 댄 탓에 믿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10여곳만 개설한 뒤 영업부진으로 파산했고, A씨 가게도 결국 1년을 못가 문을 닫았다. 가맹점 개설 당시 약속됐던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의 사례 처럼 부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만 쉬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소위 유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폐점률도 만만치가 않다. 한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가맹점 폐점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놀부의 분식업종 '공수간'(41.5%)이었다. 롯데리아의 아이스크림·빙수브랜드 '나뚜루'(23.7%), 일식 동원산업 '동원참치'(22.8%), 피자 이랜드파크 '피자몰'(22.2%) 등도 폐점률이 높게 나왔다. 프랜차이즈의 허상만 믿고 쫓았던 결과의 한 단면이다.

2015년 폐업한 자영업자수는 73만9000명이며 이중 음식점업은 15만8000명이나 된다. 수억원의 창업비용을 들이고도 폭망(폭삭 망함)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프랜차이즈에 치여 설 곳을 잃다가 폭망한 일반 영세음식점들 모두가 피해자들이다. 체계적인 브랜드 통합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창업 성공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이다. 국내 외식산업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는 프랜차이즈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풀뿌리 동네 상권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프랜차이즈 만능주의'는 차제에 지취를 감출 때가 됐다. 프랜차이즈와 동네상권이 절묘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社 說

현장 치안인력 확충해야

현장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이 경찰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민원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실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방주사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경찰이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 하반기 지방경찰청·경찰서 인력을 대거 재배치한다니 기대가 적지 않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방청·경찰서에 정원 이상으로 편성된 '과원' 인력 중 351명을 일선 지구대·파출소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지구대·파출소가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며 "일단 351명을 올 하반기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내년 상반기 인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초과 인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본청과 지방청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불필요하게 지원받지 않도록 인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증원되는 경찰관 인력은 50% 이상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휴가철 등 치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기동대를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해 현장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 경찰이 밝은 표정으로 근무할 여건을 갖춰야 국민이 원하는 경찰 모습에 가까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표적 민생치안 기능인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현장 인력 대폭 증원을 추진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생치안으로 가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국민생명보호,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직장, 가정, 친구,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 등 여러 가지를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소방안전교육은 현재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 하지만 시간, 의지, 인프라 모든 것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Image training'훈련을 소방교육에도 접목을 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한다.

Image training은 현대 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훈련방법으로, 경기를 하지 않고 머릿속의 상상만으로 경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경기를 치루게 하는 것이다. 이 훈련 중 뇌파는 실제 경기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한다.그 만큼 실제 몸으로 하는 훈련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며, 이것이 실제 훈련과 병행시에 훈련의 극대화를 이룬다.

이 훈련의 최대장점은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를 하면 선수는 90분을 경기장에서 뛰어야 한다, 하지만 Image training 경기를 뛰게 되면 5분정도면 충분하다.

잠을 자기 전 가만히 눈을 감고 내가 일하는 일터, 생활하는 가정, 또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났다고 가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상상을 해 보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문은 어느 쪽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머리 속에 그려보면 1분 정도면 모든 일정이 끝이 난다. 소방교육처럼 타인이 하는 주입식 교육보다 내가 상상함으로써 완전한 내 것이 되는 아주 효과적 교육방법 이라 할 수 있겠다.

단 1분의 투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가치 있는 투자는 없을 것 이다.

김병길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화전을 아시나요?

화재를 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소화약제는 물이다. 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 냉각효과가 가장 크며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싸다 또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화열이 크며 연소물체에 도달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침투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제보다 소화효과가 크다. 그래서 소방차에는 물이 가득 실려 있다. 그러나 소방차에 실려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다. 보통 화재시 가장 선두에 있는 중형펌프차의 3천 리터는 화재현장에서 45mm소방호수 1~2구를 방수할 경우 방수 압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도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있다.

화재발생시 소화전은 물을 공급받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그 소화전이 몇 해 전부터 수난을 겪고 있다.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이 소화전 캡(뚜껑)을 가져가는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 뚜껑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소화전 캡이 없는 소화전을 볼 때면 소방관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소방시설물은 한 개인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물로 훼손하는 것은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는 재난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한 달에 1~2회 소화전등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하여 각종 재난 및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있으며 각종 소방시설을 절대 훼손하지 말고 점검하여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다가온 화재를 초기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겠다.

김성모 / 장성119안전센터 팀장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樓 다락 누
觀 볼 관
飛 날 비
驚 놀랄 경

樓觀飛驚

▷뜻 : 궁전 가운데 있는 물견대는 높아서 올라가면 나는 듯하여 놀람.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